

# ‘저탄소·재생유기농업’ 미래 전남 농업 이끈다

### 도, 친환경농업 비전 선포...육성 계획 구체화 금지사 “세계 유기농 메카 전남 되도록 지원”

전남도는 지난 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친환경 미래 농업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저탄소·재생유기농업’을 친환경농업 미래 50년, 100년을 이룰 비전으로 선포했다.

‘유기농의 메카 전남! 세계로 뻗어가는 생명의 땅 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비전 선포식은 친환경농업인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도·시·군·친환경농업협회 비전·다짐 영상 및 비전 발표 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날 ‘저탄소·재생유기농업’을 미래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며 ▲재생유기농업 실현 ▲친환경 미래농업 환경 조성 ▲저탄소·친환경 농업기술 실천 등 3개 전략을 제시했다.

재생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히 유기농 인증 취득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동식물을 보호하고 농민과 나아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개념이다. 친환경농업의 지향점을 토양을 살리는 것에 두고 토양유기물 증가로 토양 속에 탄소를 격리해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미래 농업 환경 조성은 과수, 채소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고, 인공지능(AI)·에그테크·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유기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미래 청년 농업인이 도전하기 좋은 농업 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농업 생산 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작물 보호제, 농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유기농의 메카 전남! 세계로 뻗어가는 생명의 땅 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2024 전남 친환경 미래농업 비전 선포식’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제공>

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방법·기술이다. 인위적 무기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 유기물을 활용한 탄소 절감 농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차별된 유기농산물을 생산

산·유통해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전남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날 선포한 ‘전남 친환경농업 미래 비전’을 현재 연구용역 중인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 계획(2025-2030년)’에 담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선포식에선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을 통해 지난 20년, ‘대한민국 유기농 1번지’라는 전남 농업이 일군 성과도 재조명했다. 또한 ‘친환경농업이 전남 농업의 미래 50년, 100년을 책임질 것’이라는 포부를 담아 22개 시·군 관계자 및 친환경농업인과 함께 다짐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뺏기지 않은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1번지라는 타이틀은 친환경농업인의 땅과 눈물이 이룬 성과”라며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생명의 땅 전남, 세계 유기농의 메카 전남이 되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 광주시, GCC사관학교 메이커톤 행사 성료

### 관광 연계 ‘교통패스 G-PASS’ 아이디어 대상 수상

광주시는 최근 이틀 간 여수에서 150여명의 교육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CC사관학교 메이커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GCC(광주실리콘밸리)사관학교 중·고급 과정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고 게임·실감·웹툰·애니메이션 등 교육 과정 내 우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협업 능력을 향상,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광주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꿀잼

도시 광주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진행한 ‘메이커톤’에서는 광주지역 특색을 드러내는 축제, 설화, 관광자원 등을 소재로 한 캐릭터·게임과 같은 원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기획하는 열띤 장으로 채워졌다.

게임·실감·웹툰·애니 등 분야별 교육생으로 구성된 13개 팀은 그동안 쌓은 실무 실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광주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증강현실(AR)·메타버스 활용 관광콘텐츠 ▲광주형 버추얼 휴먼 콘텐츠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피드백도 함께 진행했다. /박선강기자

대상은 광주 관광 활력을 돌출 교통패스를 제안한 ‘꿀잼도시 광주를 향한 한 발자국, G-PASS’팀이 차지했다. ‘유스퀘어’라는 광주 교통 기반 시설의 장점과 ‘비엔날레’라는 문화콘텐츠 강점을 결합시켜 관광과 소비를 촉진 시킬 사업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메이커톤 행사를 통해 교육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직접 제작하며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글로벌 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금지사-노인회전남연합회 ‘어르신 복지’ 간담회

### 노인복지사업 현황 공유·발전 방향 의견 나누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5일 목포시 소재 한 식당에서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및 시·군지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귀담아들었다.

간담회에선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22개 시·군 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 노인 복지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노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노인복지 예산으로 1천억원이 늘어난 1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은 전년보다 3.6% 인상해 최대 월 33만4천원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도 6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명 늘었다.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9천233개소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게이트볼 대회, 노인지도자 대학 등 14개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고, 시·군 노인회에 어르신 복리 증진을 위해 10

억원을 투입하는 등 노인 권리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양수 연합회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전남 노인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사회 참여를 위해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전남 발전을 이룬 어르신의 고마움을 항상 기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강민수 국제청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 광주시 “석사논문 5·18 왜곡·편향 인사 실망”

광주시는 7일 “강민수 국제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강 후보자는 자신의 석사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5·18민중항쟁을 ‘광주사태’라고 왜곡·편향했다”며 “헌정 질서 파괴와 무고한 시민 학살자 전두환을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하고, ‘리더십이 출중한 인물’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는 “반헌법적 군사 쿠데타는 미화하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은

짓밟은 것”이라며 “편향된 역사 인식에 사로잡혀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과 균형 감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또 “정부와 여당은 5·18민중항쟁을 왜곡·편향한 국민의힘 도태우 공천 과정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낙마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를 국제청장 후보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을 즉시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

### 13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전남도는 7일 “지나해 전국 최초로 개관한 통일종합플랫폼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오는 13일 전남 정착 수기공모전 시상과 북한음식체험 등 남북 주민 간 화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7월14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해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통일 관련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탈북민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행사는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수기 공모전 시상식 ▲28만명의 구둑자를 보유한 북한이탈주민 유투버 윤설미를 초청한 평화통일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국내 유일 북한이탈주민으로만 구성된 평양아리랑 예술단 공연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수기 공모전 시상식 ▲북한전통음식 나눔체험(인조고기·속대전 등) ▲다양한 통일 공예 체험부스 운영 등이다. 전남 정착 수기공모전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남에서 정착하기까지 진솔한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목포 용당로 소재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과 북한 전문도서관 통일정보자료실과 7개 전시·체험 콘텐츠를 보유한 전시체험관, 다목적 체험실, 교육장 등을 갖췄다. /양시원기자

## 2회 ‘한운사청소년문학상’ 공모

작품 마감: 7월 31일(수) 시상식: 9월 중

한운사(1923~2009) 선생은 충북 괴산 출생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빨간 마후라’, ‘남과 북’ 등 당대 최고의 인기를 모은 드라마 등 100여 편의 작품을 남겨 한국 방송극의 지평을 연 분입니다.

한운사 선생의 고향인 충북 괴산 청안면에는 ‘한운사기념관’이 있으며 시상식은 추모식과 함께 이곳에서 갖게 됩니다. 전국 청소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한운사 작가

**응모방법**

- 작품주제 : 나라 · 고향 · 가족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
- 모집부문 : 시 · 동시(3~5편) : 매수 제한 없음
- 산문(1편)-초등부: A4 용지 10포인트 2000자 이내
- 중·고등부: A4 용지 10포인트 3000자 이내

-응모자격 : 전국 청소년 (18세 이하)

-마 감 : 7월 31일(수)

-접 수 처 : 동양일보문화기획단 이메일 dy2110002@kakao.com (우편 접수 사절)

응모신청서는 동양일보 홈페이지 (www.dynews.co.kr)에서 다운로드

-문 의 : 동양일보문화기획단 ☎043)211-0001~2

-발 표 : 8월 중 동양일보 지면 · 홈페이지 www.dynews.co.kr

-시 상 식 : 9월 중 ‘한운사기념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시 상 : 대상 1명(50만원)

특상 6명(각20만원) 최우수상 6명(각15만원)

우수상 18명(각10만원) 장려상 30명(각5만원)

● 주 최 동양일보문화기획단 ● 후 원 괴산군 · 괴산문화원

## 국힘, 광주서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10일 부산·12일 대구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8일 광주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7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첫번째로 열리는 광주 합동연설회에서는 전당대회에 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및 정년퇴임후보자들이 참여해 광주·전북·전남·제주 당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합동연설회에는 중앙당 주요 당직자,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광주·전북·전남·제주 당원 등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전북·전남·제주에 이어, 10일 부산에서 경남·부산·울산, 12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15일 천안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17일 서울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가 차례로 열린다. /박선강기자